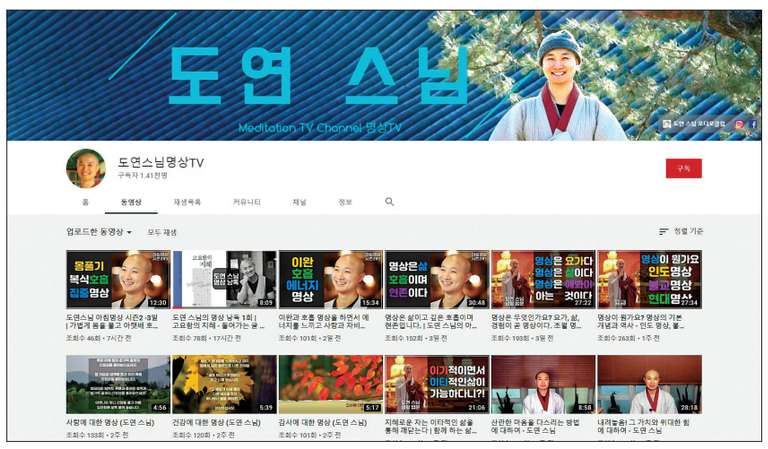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삶 공허함 채운 명상, 유튜브로 알려요”

① 명상TV 운영자 도연 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불교 크리에이터 1기’ 위촉식을 가졌다. 불교크리에이터에는 사찰여행, 성지순례, 찬불가, 경전말씀 등 다양한 주제를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전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선정됐다. 불교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보자.



도연 스님의 유튜브채널 ‘도연 스님 명상TV!’ . 명상법 소개와 함께 명상 서적 소개, ASMR 등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도연 스님이 서울 봉은사서 노트북을 켜고 활짝 웃고 있다.

불교 크리에이터 1기로 위촉된 도연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불교 관련 키워드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스님 중 한 명이다.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명상ASMR 등을 유튜브 명상TV채널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스님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학자를 꿈꿨지만 2006년 출가에 뜻을 두고 스님이 됐다.

스님은 2016년 조계종에서 사미계를 받았지만 포교현장에서는 이미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서울 봉은사에서 대학생 지도법사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서울교대 지도법사로 학생들 지도도 시작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에는 명상만한 콘텐츠가 없다. 명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정했던 스님은 출가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본인의 채널을 넘어 채환의 귓전명상, 홍익학당의 마인드풀tv에서도 명상 강연을 하고 있다.

스님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어느날 학교 선배 추천으로 간 명상센터서 감명을 받았다. 불교명상은 삶의 가치관을 바꿨고,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워줬다”고 말했다.

스님이 유튜브에서 명상TV를 운영하게 된 것은 조계종으로 출가하기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님은 “불교가 시대에 비교적 느리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다. 출가 동기도 명상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하여 이것저것 시작했는데, 명상이 주 콘텐츠가 됐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명상TV를 통해 호흡법부터 최근에는 명상에 도움이 되는 자연의 소리를 전하는 ASMR 등을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오디오클립 등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불자들을 만들고 있다.

스님은 “올해 들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상장비, 편집팀을 이뤄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며 “혜민스님의 혜민TV나 법륜 스님의 유튜브 채널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편적인 불교 명상에 대해 알리는 시도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스님은 명상음악 작곡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싱잉볼 등을 활용한 작곡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흡하지만 나중에는 불교영성음악 등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융합해 나가야 탈종교화시대에 청년세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봉은사 툇마루에 앉아 스님은 밝게 웃으며 오늘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노트북을 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숨도 5개 대학생 템플스테이 개최

9월 21~22일 마곡사 일대서 20여 학생 참여

청년문화공간 숨도(이하 숨도)가 9월 21~22일 대학생 연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총 5개 대학교에서 20여 학생이 참여했다.

대학생 연합 가을맞이 템플스테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7개 사찰 중 하나인 ‘마곡사’에서 진행됐으며, 마곡사에서 학생들은 참선 및 걷기 명상의 실습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삶과 죽음의 숨 틔움’이라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원장인 능행 스님의 특강으로 학생들은 ‘성공’, ‘행복’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듣는 시간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냈다.

숨도는 “앞으로도 템플스테이, 다양한 특강 등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문화를 친숙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성전 편찬, 일정 문제 없다”

불교성전편찬추진위 기획위원장, 5차 회의서 밝혀

조계종이 사상 최초로 편찬하는 불교성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불교성전편찬추진위 기획위 회의에서 편찬이 늦다는 조계종 중앙종회 지적에 대한 해명이 나왔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 기획위원장 정인 스님은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중앙종회에서 지적된 ‘불교성전 편찬사업이 자꾸 늦어진다’는 질의에 대해 “현재 불교성전은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12월 초안 원문을 내고 내년 4~5월 감수를 거쳐 6월 최종원고 완료, 10월 봉정이란 타임테이블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윤문 과정에서 험난하고도 치열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늦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인 스님은 이어 “불교 안팎의 높은 관심으로 혹여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내지만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별 발췌 내용을 검토한 4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3장 검토회의가 이뤄졌다. 또 한역삼장의 경우 고려대장경을 저본, 신수대장경을 참고용, 빨리어 삼장의 경우 PTS본을 저본으로 하는 등의 불교성전 번역 지침 논의가 진행됐다.

번역 지침 논의에서는 부처님과 붓다의 호칭을 부처님으로 통일하고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용어가 상이한 경우 구마라집본 한자음 사용, 한자음보다 범어가 친숙한 경우 괄호 병기 등을 확정했다.

한편 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내로 4~5차례 회의를 더 가질 예정”이라며 “10월 전문위원회의 각장별 수정보완과 기획위원회의 4장 검토회의가 진행되며 11월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상용어의 아라비아 숫자 사용, 한글표기와 한자 병기원칙, 주석 사용의 지양 등이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BTN, 인문·교양 중심 가을개편

불교적 관점서 해법 찾는
시사 프로그램 새로 선봬
세계적인 명상가 인터뷰도
인문 강좌·유산 탐방 ‘눈길’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가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인문·시사·교양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대거 편성돼 눈길을 끈다.

BTN은 “10월 7일 가을개편을 단행한다”며 “이를 통해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불교역사문화 프로그램’과 ‘참신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불교교양 프로그램’ 등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들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이다.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붓다인사이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교적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불자맞춤형 개안(開眼) 시사프로그램이다. 패널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최순용 변호사,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10월 10일 첫 방송되며 한·일 관계를 주제로 패널들의 난상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10월 8일 첫 방송되는 ‘명상, 세상을 보다’는 세계적 명상 대가들의 인터뷰와 강연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열린 ‘명상축제(After Mindfulness, Urban Retreat)’를 촬영한 토론 및 강연과 지난 5, 6월에 미국 LA에서 열린 ‘BUDDHA FEST’에서 명상대가들의 명상에 관한 다양한 주제 강연을 비롯한 세계적인 명상가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잔 브라흐만 스님과 노먼 피셔,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단독인터뷰는 살펴볼만 하다.

전국 각지에서 전해지는 불교 설화를 살펴보는 ‘설화견문록’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개그맨 장재영,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리나가 진행을 맡았다. 10월 9일 첫 방송된다.

10월 10일 첫 방송되는 ‘출가’는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를 다룬다. ‘천년의 여행’은 방방곡곡의 불교문화유산을 영상언어로 수려하게 담아냈다. 첫 방송은 10월 7일.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0월 7일 첫 방송되는 ‘BTN과 조계종교육원이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는 각계 명사들이 불교와 인문학에 대해 강의한다.

이밖에도 ‘활안 스님의 천태지자대사 선교관(禪敎觀)(10월 9일 첫 방송)’ ‘행복나무에 핀 법화경(10월 8일 첫 방송)’ ‘광우 스님의 마음수행법회(10월 7일)’ 등도 새롭게 시청자를 찾아간다.

신성민 기자

날마다좋은날, 수협과 어촌 봉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수협은행 ‘sh사랑海봉사단’과 함께 9월 21일 전남 해남군 산정리 어촌지역에서 한방 진료 및 해안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날마다좋은날은 지난 6월, 수협불자회와 수협은행 봉사단 협조로 강원도 양양 어촌마을에서 첫 한방 진료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봉사는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야(봉사단장 황채운) 봉사자 7명과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정주화) 소속 한의사 2명이 동참했으며, 오전·오후 봉사를 통해 총 60여 명의 어르신에게 건강 상담 및 침, 뜸 등의 한방 진료가 진행됐다.

격려차 봉사 현장을 방문한 이기흥 이사장은 이동빈 수협은행장, 김진균 부행장 등 수협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해안가 청소 및 폐어구 수거 봉사활동을 직접 하며 노동인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에 자비의 손길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